

# 신제품소개

## 가스누설경보기“가스빼빼”

□ 金星計電 (株)

TEL: 273-4140/59 (3542, 3537)

'85년 7월 개발을 완료 현재 시판중인 금성가스누설경보기(가스빼빼)는 공기중에 1/4 LEL(Lower Explosive Level) 이상의 가스가 누설되면 경보기 내에 내장된 가스 검지소자(Gas Sensor)가 누설된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 및 Lamp의 점멸로 가스의 누설을 알려주는 장치이다.

- 금성가스빼빼는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LPG(Liquefied Petroleum Gas)나 도시가스 등 가연성 가스에만 해당된다.
- 또한 암모니아(NH<sub>3</sub>), 수소(H<sub>2</sub>), 질소(N<sub>2</sub>) 등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스누설경보기를 제작할 수가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검지 허용농도에 따라 달라진다.
- 경보기의 취부위치는 가스와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데 LPG와 공기보다 무거운 도시가스(서울, 부산소재 이외의 도시가스)는 바닥에서 30cm이내에, 공기보다 가벼운 도시가스(서울, 부산

소재 도시가스)는 천장에서 30cm이내에 취부하여야 한다.

● 금성가스빼빼의 특징으로는

- 접촉연소식 Sensor를 이용 온도·습도의 보상 기능
- 반도체식 Sensor를 이용 감도 우수
- 외관이 미려하고 설치가 용이
- 반영구적 Sensor 채택을 들 수 있다.

## 1 메가 비트 ROM

□ 金星半導體 (株)

TEL: 273-4141

금성반도체는 지난해 11월 25일 미국,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, 국내에선 최초로 1 메가 비트 ROM 개발에 성공했다.

이 1 메가 비트 ROM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, 문자발생기, 프린터, 음성합성기, 게임기 등에 사용되는 핵심소자로서 1개의 칩에 약 13만자 이상의 영문 또는 4만자 이상의 한글을 기억할 수 있다. 더우기 이 소자는 데이터 판독시간이 10억분의 250초에서 10억분의 150초로 1.7배 이상이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, 단위 칩당 약 110만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시켜, 웨이퍼 1장당 100만 원 이상의 고부가가치가 기대되고 있다.

금번 개가는 일본업체의 Dumping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고부가가치의 메가 시대로 진입시키는 캐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

## 최소·초박형 전자계산기

□ 三星電子 (株)

TEL: 751-6066 (홍보실)

빛을 이용, 건전지없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명함 정도 크기에 두께는 2mm로 휴대가 간편한 국내 최소·최경량의 카드형 전자계산기(모델명 SC-8020)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.

삼성전자(대표:鄭在恩)가 개발한 이 카드형 전자계산기는 태양전지를 내장, 건전지 교환없이 부담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건전지가 필요없음에 따라 크기가 가로 85mm, 세로 54mm, 두께 2mm, 무게가 35그램으로 제품이 극소화 됐다.

특히 태양전지는 50룩스 정도의 밝기에서도 작동되는 우수한 것으로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초박형이면서도 8자리(천만 단위)까지 표시기능, 루트, 메모리, 할인할증, 퍼센트 계산기능 등 일반휴대용 계산기에 손색없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.

이 계산기는 그동안 해외여행자의 선물이나 밀반입품 또는 수입상에 의해 국내에 반입, 유통돼 왔으나 삼성전자가 개발, 시판함으로써 연간 5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.

삼성전자는 이 계산기가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기능이 다양해 개인 사용은 물론 선물용으로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, 다양한 컬러를 선보일 예정이다.

